

제2회 전국기술사대회 축사



박찬모 특보

존경하는 한국기술사회 이정만 회장님, 교육과학기술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님, 내외 귀빈, 그리고 기술사 여러분!

오늘 「제2회 전국기술사대회」를 맞이하여 국가기술 최고의 전문가이신 3만 4천여 기술사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나라의 운명이 첨단과학기술력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뛰어난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말입니다.

경애하는 기술사 여러분!

반세기 전 일어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끌어 낸 주역이 바로 기술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활용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확신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바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사제도는 고도 성장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등 제도적으로 우수 기술인의 배출과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전국기술사대회를 통해 기술사시험제도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술사제도가 선진화 되어 기술사 여러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 여러분의 분발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종합 검토되어 기술사제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자격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미국의 기술사제도와 같이 기술사시험제도와 공학인증을 연계하여 차별화하는 것도 선진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술사 여러분!

저 또한 기술사 제도를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술사분들이 안고 있는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는 3만 4천여 기술사들의 숙원이자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서 기술사 여러분과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사 여러분께서도 기술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기술사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기술사 계속교육제도로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6일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 박 찬 모